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면제

■전남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새해부터 전남 여성 농업인들은 행복바우처를 발급받을 때 자부담 10%(2만원)가 면제된다. 전남 청년(21~28세)들에게 문화복지카드(연 20만원)가 주어지는 등 청년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200만원) 지원도 기존 2200쌍에서 4400쌍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전남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도민 혜택과 제도, 시책'을 29일 소개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총 7대 분야 127가지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선 미래형 산업 중심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를 시행, 7개 분야 830개 청년

청년 문화복지카드 20만원 지급

농업인 재해보험료 부담 완화

목포~가거도 등 여객선 운임 반값

독립·무주택 청년 임대료 지원

일자리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 아마존 '식품 전문 브랜드판'을 개장한 데 이어, 전남산 농수산물 판매를 전용으로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쇼룸을 구축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선 전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연 20만 원) 발급 시 기존 자부담금 10%(2만 원)를 면제하고 전액 대비로 지

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보험료의 농업인 부담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선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 활성화 시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목포~가거도, 여수~고흥~거문도, 완도~여서도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여객선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관광·체육·문화 분야와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선 취약계층 복지와 결혼·출산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한다.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여행활동비를 1인당 14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도 신설한다.

건설·환경 분야에선 생활에 유용하면서 전국적으

로 변경·시행하는 제도 등을 포함한다. 내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해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에선 도민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할 새로운 시책을 마련했다. 콜메이트 등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물품 제공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통한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가 대표적이다.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접수도 받는다.

전남도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해 22개 시군을 비롯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이·통장들에게도 배부한다. 책자는 생애주기별, 월별 등으로 구분, 도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주시, 에너지 전환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순환 생태계 구축

광주시는 "에너지 전환 기금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순환 생태계 구축에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수 시민은 소액을 모아 설립한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부지, 학교 등에 시민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고 수익을 공유하며 시는 에너지 전환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사업·한국가스공사 배당 수익과 자금을 지원한 시민 햇빛발전소 수익 일부를 에너지 전환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은 다시 태양광 발전소 구축, 에너지 전환 시민 활동 지원에 활용돼 선순환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2045 에너지 자립 도시" 구현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해 5개 마을, 67개 단체에서 재생 에너지 전환 실천 운동을 펼쳐 왔다.

내년에는 거점센터 10곳이 더 생긴다. 순경중 시 인공지능농업교육장은 "2045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에너지 전환기금을 마중물 삼아 150만 시민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내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704명 선발

광주시는 "2022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지역방역, 공공근로 등 분야 296개 사업에서 704명을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내년 1월 3~7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만 18세 이상으로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4억원 미만인 시민은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내년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주 15~40시간 일하고 임금은 최저 시급인 9160원을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자치구에서는 신청자들의 재산·소득공공일자리 참여 경력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5개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일자리 부서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권춘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일자리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빛의 분수대' 착공식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들어설 '빛의 분수대' 착공식이 29일 오전 열렸다. 문화전당 야간경관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빛의 분수대'는 미디어아트를 활용,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알리고, 5·18민주화 정신을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관련기사 7면>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그린 스마트 펀 시티' 광주대 전환 특별위 가동 '전남 갯벌 유네스코 유산 등재' 최대 뉴스

분야별 전문가 등 38명 참여

광주시가 제시한 '그린 스마트 펀(Green Smart Fun) 시티' 구상의 밑그림을 그려갈 조직이 출범했다. 시장 직속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29일 '광주대 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특별위는 장석주 호남대 교수를 위원장, 장초롱 퍼니라이프 대표와 강혜림 파디엔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는 환경, 생태, 인공지능(AI), 산업, 문화, 관광 전문가 등 38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13명을 20~40대로 채워 청년 참여 폭을 넓혔다. 광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스마트-펀 도시로의 변화 모색에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해 논의를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위는 그린, 스마트, 펀 분야별로 3개 추진단

을 구성해 광주시 해당 실·국과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의견 수렴, 자문 등을 거친 뒤 실행 비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선 장석주 호남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장초롱 퍼니라이프 대표, 강혜림 파디엔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린 추진단장은 박은철 광주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스마트 추진단장은 류재준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 펀 추진단장은 주스컴퍼니 이한호 대표가 맡는다.

이용섭 시장은 "이제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뛰어넘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 미래 100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그린 스마트 펀 시티'를 위한 광주의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님들의 혁신적인 제안과 치열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정 10대 뉴스' 설문

전남도민과 공직자들은 올 한해 도정 관련 뉴스 가운데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최대 뉴스로 꼽았다.

전남도는 29일 "2021 전남도정 10대 뉴스" 설문 조사 결과 총 설문응답자 1318명 중 가장 많은 572명(43.4%)이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올해 최대 뉴스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23일부터 6일간 도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언론이 보도한 전남도의 30개 주요 뉴스 중 10개를 복수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다 선택을 받은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2위는 528명(40.1%)이 뽑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가 선정됐다. 3위는 492명(37.3%)이 호응한 '국립한국성신원 유지 계획'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섬 주민 교통불편 해소할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누리호' 발사...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 1980억 원 규모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가시화, 신안 퍼플섬, 유엔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착공, 제2청사로 기능 확대,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성적 달성 등이 이름을 올렸다.

1위를 차지한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간절한 의지를 담아 온 힘을 합쳐 일궈낸 성과로, 도민의 공감대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분석됐다. 2위인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는 푸른 바다와 하늘, 바람과 같은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전남도가 전남형 일자리, 해상풍력발전단지 등과 같은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길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k@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